

투데이 칼럼

복지의 사각지대 '독거노인' 남의 일 아니다

“옆 동네 혼자 사는 독거노인인데, 갑자기 죽었어.” “나도 혼자살고 있는데 낯일 같지가 않고 무서워.” 요즘 읍사무소에 방문하는 어르신들과 상담하다 보면 오래 드는 말이다.

혼자 살다 외롭게 삶을 마감한 사람들도 정말 고독한 죽음이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3명 중 1명이 독거노인으로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 1위에 해당된다.

해가 갈수록 독거노인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조차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독거노인 고독사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그 속에서 독거노인은 고독고(孤獨苦), 병고(病苦), 빈고(貧苦)의 삼중고를 홀로 겪으며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군은 현재 인구대비 초고령화 사회로 65세 이상 노인은 7,123명, 그중에 독거노인은 1,651명으로 독



문우성 정수읍장

거노인 문제가 심각하다.

몇가지 사례를 보면 장수군의 번영을 이끌었던 김00할아버지와 박00할머니는 한때 누군가의 할아버지였고, 할머니였다. 하지만 지금은 부서지고 쇠약한 몸으로 홀로 외로움 속에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다.

또한 고모 할머니는 젊은 시절 몸이 부서져라 가족들을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 하지만 최근 여러 가지 병세로 몸이 쇠약해져 께니도 챙기지 못하고 병원조차 갈 수가 없다.

전00할아버지 또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기초수급 생계비로 독

거노인 문제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듯 초고령화 사회의 독거노인 고독사를 비롯한 노인 문제는 이제 남일이 아닌 나의 일이며, 우리 앞에 닥친 사회문제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장수군은 2010년부터 국가 공모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 및

응급상황에 대처하고자 독거노인 1500세대를 대상으로 매내 응급장비 설치 및 독거노인 응급관리요원들을 투입, 응급관리요원들이 수시로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장비 점검 및 안전 확인을 하는 독거노

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등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은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안전 확인 및 질병에 대한 케어 정도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갈수록 많아지는 노인에게 안전 뿐 아니라 욕구과와 등을 통해 개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홀몸노인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노인들의 욕구에 따른 교육, 여가, 사회참여 프로그램, 요양서비스 등 효과적인 정책 시스템을 마련하여

복지인력 및 예산 확충을 통한 노인상담 전문가를 양성하여 가정방문 및 상담을 통하여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독자제언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필요할 때

일 년 12월중 5월은 가정의 달로,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날이다. 이와 함께 마니핀 타국에서 한수와 외로움으로 마음 한 구석을 달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주위에 많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 176만 6000명, 결혼이주자 15만 3000명, 다문화 학생 10만 명으로, 정읍시에도 621세대로 이미 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 내 크고 작은 폭력으로, 그 이유는 결혼이주 여성들의 준비되지 못한 결혼, 의사불통,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고, 집안 경제권 다툼, 사부모와의 관계, 남편의 음주 등, 폭행의 유형은 언어적 폭력, 직접 폭력으로,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농촌사회의 신부 부족으로 동남아, 중국 등지에서 결혼으로 이주하는 여성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2세들이 성장해 우리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결혼이주 여

성에 대한 가정폭력은 한국사회의 낮은 다문화 수용성, 순수혈통주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해 이들의 인권보호를 저해하는 주원인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영주 자격 취득과 귀화를 위해서는 배우자(남편)의 신원 보증이 있어야 가능해,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기댈 수 밖에 없는 처지여서 그로 인해 수많은 결혼이주 여성들이 온갖 수모와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여성들이 가정폭력과 인권유린의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금까지 결혼 이주여성 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과 적은 지원, 한국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시책에 초점을 뒀다면, 이러한 실정을 깊이 인지하고 이들이 인권유린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지금부터는 제2의 고향인 우리나라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함께 한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보호에 노력이 필요 할 때이다. 신하은 정읍경찰서 부청문관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파괴된 예멘 수도 주유소



북부 시아파의 후터 반군이 4년 가까이 장악하고 있는 예멘 수도에 27일 사우디 주도 수니파 연합군 전투기가 공습해 주유소를 파괴했다. 수니파의 공습이 3년 넘은 가운데 1만 명이 사망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설

전북 자존을 계속 말해야

전북도는 “전북 자존”을 계속 말하는 열정을 가져야겠다. 그것은 전북도가 지난 날 도민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 공표했던 바이다. 그런데도 오늘날 지역의 발전상이 시원치 않은 이유를 전북도 고위 관계자들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다른 고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유감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더욱 끈질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대로라면 다른 광역 시도들과 비교해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 뻔하다.

전북도는 재류 찾기에 보통 이상의 열정을 가져야 한다. 우리 전북이 오래 전부터 광주와 전남에 딸려가는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광주와 전남이 전북보다 인구가 많고 경제권이 크다고 해서 그래야 할 이유는 없다. 전북은 독립된 지자체이지 광주와 전남에 소속된 게 아니다. 전북은 광주와 전남의 틀러리가 아니다. 국가 예산을 보아도 영남권과 비교해 호남권이 추대점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전북은 더 어려운 대접을 받고 있다.

전북도는 우리 지역의 뉘을 지키기 위해서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낙후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는 제 뉘을 단단히 지켜야 한다. 향토의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고 또 말하고 있거니와 매년 그 발전상을 보자면 미미하다. 전북 지역이 조금은 발전했거나 싶을 때, 다른 지자체의 발전상과 비교해보면 이쪽의 발전은 발전 같지가 않다. 전국도 단위 광역 지자체의 인구 변동 상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전북만 인구가 감소했다. 올해는 그러지 않아야 하는데 어찌될 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전북도는 고장의 낙후와 관련하여 도민의 마음 고생이 심함을 알아야겠다. 도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헤아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남에 치이고 충청에 치이고 광주 전남에 밀려온 세월이 한 두 해가 아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하고는 아예 비교 대상이 못된다. 전북도는 이같은 불평등을 용납해선 안 된다. 최근 군산 GM 패싱이 불평등의 단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정말이지 지역의 오랜 낙후는 도민들이 바라는 바가 결코 아니다. 전북도는 “전북 자존”을 계속 외치는 강인함을 보여야겠다.

전주를 외국 관광객에 더 알려야

전주시가 글로벌 문화관광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주목이 된다.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전주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다변화를 위해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 호주 등 6개 국의 현지 여행사 관계자 20여 명을 상대로 팸 투어를 실시한 것은 괄목할 만한 일이다. 관광 명소를 알림과 동시에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알린 것은 여행 상품 개발 차원에서 잘 한 일이다.

저번에 전북도는 관광 분야와 관련해 반기문 소식으로 군산과 중국 스다오 간 카페티 취항이 주 3회에서 6회로 증편된 것을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전주시가 글로벌 관광으로 시야를 더욱 넓힌 것은 더욱 바람직하다. 다시 중국과 관계가 호전되면서 유커들이 많이 찾아주리라는 기대도 기대어려니와 미국과 캐나다, 유럽 여러 나라들이 한국을 찾는 중에 전주를 방문하게 된다면 관광 사업이 그만큼 호황을 누릴 터이다. 모두가 바라는 바를 다시 상기시키거나 중국은 우리의 큰 시장이 돼야 한다. 미국과 구미의 관광 시장 또한 그래야 한다. 중국 유커들에 대한 관광 분야가 호

황을 누리 다른 외국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 것인가. 최고 순위를 다룬 만큼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많은 이들이 찾아와 관광을 열다 보면 우리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큰 힘이 될 터이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그 어느 때고 관광사업에 기대를 걸지 않은 적이 없다. 그래서 매년 관광시즌이 되면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가 각별했다. 이제 더욱 큰 성과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두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전보다 오히려 훨씬 나아졌다는 평가가 있어야겠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많은 관광객들을 끌기 위해 분위기 활성화를 도모했던 게 한 두 번이 아님을 도민들은 잘 알고 있다. 관광 시즌이 되면 모두의 총여력을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격려하면서 말이다.

전주시는 한국 마을 관광객 천만명 돌파를 2년 연거푸 성공한 바가 있다. 그 노하우를 심분 살려야 한다. 그러면서도 이제 변모해야 할 것은 변모시켜야겠다. 관광 마인드가 더욱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관광사업의 성공으로 경제 효과 사례를 더 많이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